

개 념 라 신 문

이번 학기엔 학점을 최고로 잘 받고 싶어!! 라고
생각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쓴 시점은 4월 18일 수요일 밤입니다
- 회칙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워낙에 갑작스럽게 생긴 자리라 모르셨던 분들도
많고 시험전날이라 참가가 어려웠던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하는데 개인 자격으로 참관해본 후
저의 판단과 입장을 밝힙니다.

다들 알다시피 4월 18일, 오늘은 중간고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이다.
나 또한 내일부터 시작될 시험을 며칠 전부터 의식하면서 친구들과의 약속도, 조별표 준비도 일단정지시키고 시험을 잘 보려고 맘먹고 있는 차다. 그런데, 오늘 아침 뜬금없는 소리를 들었다. 총학생회장이 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늘 저녁에 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공청회(公聽會), 즉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시험 전날 저녁 7시에 마련하겠다는 소식에 먼저 귀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통보'를 바로 어제 저녁 6시에 했다는 것이다. 이 '딱'한 통보는 바로 여기서(알려드립니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의 답변에서 오늘 새벽 백양로에 플랜카드 2장도 걸었다는 '노력'도 들을 수 있었다.) 오늘 수업이 5개나 있었지만,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 역시 아무도 공청회 소식을 알지 못했다.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이런 당연한 결과에, 이를 모를 리 없었던 총학생회장의 의도가 사뭇 궁금했지만 게시판에서도, 어디에서도 알 수는 없었다. 과연 내가 공부를 거의 해놓지 않은, 당장 내일 있을 시험을 두고 제대로 된 공청회가 아닌 것 같은 공청회를 가야할 것인가 잠시 생각했다. 그래도 명색이 '공청회'라니, 가서 최소한 총학생회의 의도라도 알 수 있을까 해서 참관하기로 했다. 같이 집으로 향하던 친구들에게도 권유했지만, 마찬가지로 내일 시험을 보는 그들은 회칙 개정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집으로 가는 것을 택했다.

자, 이제 7시가 조금 넘어 공청회가 시작되려고 한다. 어라라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공청회라면서 20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인원만이 커다란 백주년 기념관의 반의반의반의반의반의반의 자리를 겨우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와 비슷한 비례로 민망할 정도로 큰 무대에서는 총학생회장이 책상 하나를 놓고 앉아 있었다. 물론 아까부터 이런 사태를 예상 못한 건 아니었지만, 이정도면 이건 공청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게다가 공청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자나 속기자, 녹음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기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총학생회장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장은 바로 개정된 새 회칙을 설명하려고 들었다. 설명을 하면 질문을 받고 이에 대답하여 재개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먼저 그 자리의 공청회 명칭이 과연 적당한 것이며, 이것을 총학생회장님이 공청회의 목적이라고 하신 "연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리"인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 순수 참가인원은 20명 미만이며, 나온 의견을 들어야 할 총학생회 집행부는 총학생회장과 개정안 안건을 나눠주던 분까지 모~두모두 포함해보았자 단 2명. 밖에 되지 않는 이 자리를 과연 '공청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지,

2. 저조한 참여율을 총학생회장 또한(여기서 총학생회라는 집단으로 명명하지 않고 개인인 총학생회장이라고 대표하는 이유는 1.에서 언급한대로 사실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닐텐데, 이러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시험 전날 공청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3. 만약 저조한 참여율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청회의 날짜를 시험 전날로 잡은 것과 홍보의 부족(이것은 총학생회장도 '미흡했다'며 인정한 부분이다)에 대해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할 것인지, 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공청회?? 참관기!

이에 대한 총학생회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1. "연세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기획하였으며, 적은 인원이지만 여기서나마 최대한 의견을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으며 2차 공청회가 준비되어있으니 그 때에 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공청회 또한 '딱' 시험이 끝나는 마지막날, 25일이다. 해방의 기운에 차서 뛰쳐나갈 학생들을 고려하여 2차 공청회를 시험 마지막날의 7시로 잡은 것인가. 2차 공청회의 5일 후인 30일은 바로 총학생회가 '공고'한 총투표의 시작날이다. 또한 2차 공청회의 홍보 또한 오늘과 같은 식으로 게시판에 띄어 올리고 플랜카드 2장 붙이는 식으로 끝낸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라는 말은 굉장한 노력과 소통이 있었다는 뉘앙스마저 풍기는 효과를 지닌다.

2. 전부터 이와 비슷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려고 했으나, 여차저차해서(이 여차저차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나지만, 개인적으로 공청회와 토론회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총학생회가 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지금에서라도 하는 것이다.
→답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지금에서라도'가 왜 꼭 시험 전날인지에 대해 의문을 지을 수 없다. 순진하게 생각하면 바빴겠지.. 일이 잘 안풀렸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정치적 꿈수(시험 때문에 선택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미리 예상하고 날짜를 잡음으로써 명분을 위한 공청회를 연 뒤, 총학생회 맘대로 회칙 스리슬쩍 바꿔치기 하기 →나중에 "우리 공청회도 했다고!! 연세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인 회칙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가 있다고 생각하면 꿈수도 대단한 꿈수가 아닐 수 없다.

3. 홍보가 부족하긴 했지만 사과문을 쓴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 집행부와 상의해 보아야 한다.
→총학생회 이름으로 내는 사과문의 경우는 나 또한 집행부와 상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홍보의 부족에 대한 명백한 잘못의 시인과 사과를, 그 형식이 꼭 사과문이 아니더라도 저조한 참여율의 공청회의 결과로서 학생들에게 밝힐 것이냐 라는 이어지는 질문에도 총학생회장은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나 해결보다 모르쇠로 일관하며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려 했다. 다음의 질문답변은 그 일부이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미흡하신 부분에 대해 인정하셨으면서도 그것을 나중의 발표문건이나 공지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그건 뭐..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수는 없구요"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확실하지 않으시다는 건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는게요"

"아.. 그런가요....."

... 이후 다른 질문으로 넘어감..

총학생회장은 '연세인의 의견을 들'으려고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하였다. 참가한 약 20명의 '연세인'들은, 홍보가 충분히 되지 못한, 20명 미만만이 참가한 공청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리인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만약 이러한 극소수의 참가인원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이야기를 '공청회의 결과' 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을 때, 그것은 결코 오늘의 자리를 알지 못하거나 참여할 수 없었던 학생들을 포함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총학생회가 20명 미만이 참여한 오늘의 공청회를 회칙 개정의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지켰다는 증거로서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면 나는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연세인'임이 분명한 참가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 표명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는 과연 앞으로 바뀔지는 회칙 개정에 대한 의견 또한 '연세인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시되거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다루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한총련 탈퇴? 이제 와서 무슨 의미냐!

지난 4월 20일, 총학생회는 한국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을 탈퇴하겠다는 총투표를 하나 더 발의했습니다. 개정회칙을 총투표에 부치겠다는 이야기를 총여학생회를 폐지시키겠다는 연세춘추 1면 기사로 낸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는 애초에 한총련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한총련을 두고 "유령"이라 표현했습니다. 이미 그 실체와 위력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한총련이란 이름은 유용한 선전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총련에 동의하지 않는 단과대 학생회(예를 들어 법대학생회)나 총학생회는 함께 활동을 하지도 않고 분담금은 더더욱 안내고 심지어 반대 활동까지 하는데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탈퇴선언을 하는 걸까요? (그것도 또 혼자서! 아, 연세인은 몰랐지만 외부 언론사는 다들 압니다.)

지금까지의 총학생회의 행보를 봤을 때, 사그러드는 회칙 개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아니, 그럼 공청회, 홍보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하란 말이야)

회칙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연세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반한총련 정서를 이용해 (제발 정서만 이용하는 건 좀 그만하자. 논리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보자고)

통과시키려는 권모술수가 아닌가. 생각해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총투표 학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궁금합니다. 총학생회는 무슨 생각으로 회칙을 개정하겠다고 한 걸까요? 회칙 개정에 얼마나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있는지 몰라서 그냥 총투표에 부치는 걸까요,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총투표 하는 걸까요?

회칙개정, 해야죠! 근데 지금 개정안은 문제가 너무 많아...;

회칙개정,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칙 개정은 아무래도 총학생회장님과 총학생회집행부만 속닥속닥해서 만들었다보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깔끔하게 문제 많은 개정안이라는 걸 인정하면 될 텐데, 부끄러워서 공청회도, 홍보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일단 총투표 한다니까, 한총련 탈퇴를 내세워서라도 어떻게든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런데 함께 논쟁과 소통은 안하니까 그건 우리라도 하고) 눈 크게 뜨고 하나하나 살펴본 다음 4월 30일부터 있을 총투표를 기다립시다.

알디 알은 눈속임, 뻔히 속보이는 정치적 언론 플레이 간파 못할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부족한 표 한 장 (혹은 클릭 한번)밖에 없다면, 신중하게 또 올바르게 행사합시다. (아악 떨려떨려>_<)

법학과 3학년
임유청

더,
더,

거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공청회라는데,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네요. 저번 공청회에서 한 시간 반 동안 똑같은 말만 듣고 나왔는데 (홍보 부족은 인정하지만 사과를 못하겠다는 식의.. 지난 공청회 관련 글을 참조해주세요. 부끄..) 오늘도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갔다 와서 또 격분해서 글 쓰는 사태가 생기지는 않을까 심히 신빙성있는 걱정이 드네요.

모두들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젠 총투표만 남았습니다.....

사진: 지난 4월 18일 총학생회의 무성의한 홍보와 시험 바로 전날이라는 악조건으로 무산된 1차 공청회

총여 없애고, 반도 없애고 '우리 학교'를 '당신들의 학교'로 만들 셈인가요? 내 등록금 가져다가 배불리 먹고 살건가요? 내건데 나는 왜 안되나요? 니넨 무슨 생각이세요? - 문과대학 불꽃 5반

총여가
이런
이유로
이
대
문
이
이
에
아
니
가

아직도 반 내에서, 그리고 학내 여러 모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고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를 절감하고, 주저앉고 마는 여학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여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기대를 현재 독선적인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총학에게 과연 바랄 수 있을까요? Never!

열아홉번째 계속 세워야만 하는 총여의 고민들 중에 이러한 뜻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일, 총여가 폐지된다면, 더 나아가서 단대학생회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면, 반 학생회의 고민을 자기네 식으로 잘라낸다면, 그 도록 내고 싶어하는 목소리를 어느 마당에서 자유롭게 통할 수 있을까요?

총여를 응원해야만 하는 이유는 단지 여학우만을 위해서만은 아닐겁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서, 진정성을 잃지 않은 학생회를 위하기 때문이기도 할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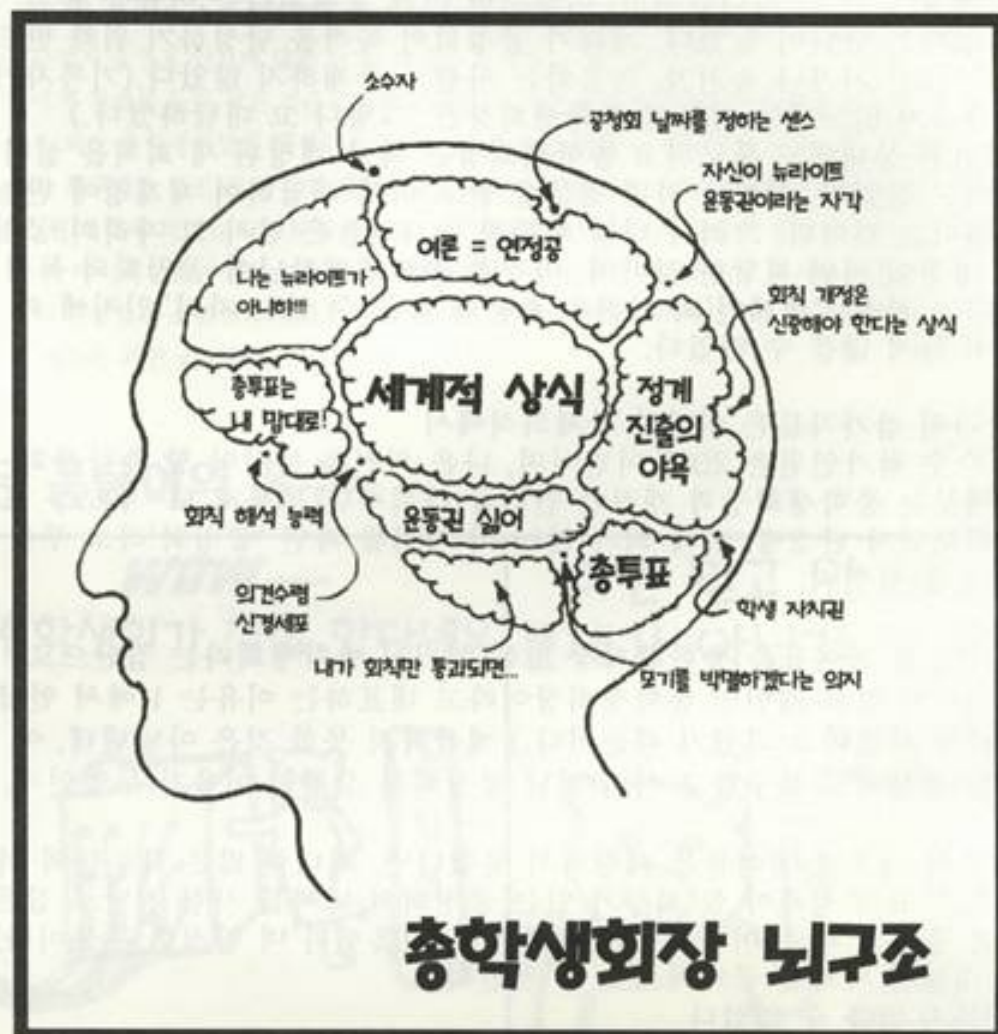
내 손으로 총여학생회를 뽑았고, 내 손으로 총여학생회를 쓴다. 세계적인 상식이 뭔지 난 도무지 모르겠고 알 수 없는 상식이 되겠지만, 이 적박한 상식의 학내에서 난 내 손으로 총여학생회를 향한 지지의 신뢰를 보내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다릴 것이다.

사실 저로서는 총학생회에서 총여학생회를 없애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현재 있는 만화를 없애고 그와 같은 단체를 또 만들고 그 수뇌를 총학생회장 임의로 뽑는 것 자체가 현재의 총여를 총학생회의 산하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학의 총학생회도 국가 정치의 축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총학생회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총학생회를 견제할 이유는 없어지고 총학생회 독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따뜻한 봄 날,

총여학생회에 도착한 지지 업서-



총학생회장 뇌구조

WOW의 회칙 개정안 ver3.0(최종) 후비기

- 최초 수정안에서 바뀐 부분 중심으로 -

교육투자채 "우리 개나리가 살아있어"(주거설)

<http://club.cyworld.com/ys-struggle>

최초 개정안

ver3.0(최종) 개정안

(1) 대의기구의 분리와 총학 집행부의 권한 집중

- ① 총학, 중운위, 학운위가 서로 분리됨.
 - ▶ 기존에는 총회장이 중운위원장, 학운위원장이었으나 이제는 각 위원회장을 따로 선출, 서로 감시 견제만 할 수 있음.
- ② 상설 의결 기구였던 중운위의 위상이 '심의 견제 기구'로 낮아짐.
 - ▶ 기존에는 중운위 의결 사안을 총학 집행부가 집행하는 형태(의결과 행정의 분리)였으나, 이제는 중운위가 총학 집행부의 사업에 '자문'과 '자료조사'만 할 수 있음.
 - ▶ 중운위가 심의기구가 되면서 총학 집행부가 일상적인 사업의 정책결정을 담당.

- ① 총학 집행부의 일이 '승인사무, 고유사무, 명령사무, 재량사무'로 분리됨.
 - ▶ 최초 개정안과 달리 총학 집행부 사무 중 '승인사무'에 한하여 중운위의 의결을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음.
 - ▶ '명령사무'는 학운위의 의결이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음. 그러나 '재량사무'는 총학 집행부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 각 사무별 업무 분리가 모호함. 총회장의 말에 따르면 '재량사무'는 총학 공약에 해당하는 사업들이라고 함. (ex. wow가 공약으로 걸었던 '중도 모기 박멸', '한총련 탈퇴' 등)
- ② 중운위는 '승인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여전히 '심의 견제'만 할 수 있음.

=> 총학 집행부가 '승인사무'를 제외한 사업들, 특히 공약으로 걸었던 '재량사무'들을 중운위나 학운위의 의결 없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총학 집행부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일상적인 대의체계가 무너짐. ('재량사무'는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이라면, 노무현이 선거 공약으로 걸었던 '부동산 정책, 연금법 개정' 등은 국회 인준이 없어도 행정부가 알아서 처리해도 되는 건가?) 즉, 조항의 핵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

(2) 확대운영위원회의 탄핵권 및 정족수

- ① 구성원
 - ▶ 과/반 회장 및 부회장
 - ▶ 학운위 성사가 더욱 어려워짐. 학운위 의무 참석 조항이 있긴 하나 무기력한 조항이고, 부회장을 아예 뽑지 않는 과/반이 많음.
- ② 의결 구조
 - ▶ 과/반 운영위원회의 -> 단과대 운영위원회의 ->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의결 구조가 파괴됨.
- ③ 탄핵권
 - ▶ 학운위 고유 권한인 '탄핵권'이 삭제됨.

- ① 구성원
 - ▶ 과/반 회장으로 다시 축소.
 - ▶ 최초 개정안보다는 학운위 성사가 쉬워짐. 그러나 여전히 한 학기에 한 번 열리는 학운위만으로 총학의 모든 사안을 견제하기 어려움.
- ② 의결 구조
 - ▶ 내용 변한 것 없음.
- ③ 탄핵권
 - ▶ 중운위에서 탄핵을 제안하면 학운위에서 심사하게 됨. 그러나 중운위도 '고의로 중대한 회칙의 위반을 범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탄핵을 제안할 수 있음.
 - ▶ 학운위 자리에서는 탄핵을 제안할 수 없음.

=> 학운위 정족수와 자격이 다시 기존 회칙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학운위는 한 학기에 한 번 뿐임.

즉, 조항의 핵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

=> 탄핵권 역시 중운위가 먼저 제안하면 학운위는 심사만 할 수 있고,

탄핵의 근거를 '고의적인 회칙 위반'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자유로운 탄핵 제안(ex. 선거 비리, 경력 사기 등등)이 불가능.

(3) 부칙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

내용은 그대로임. 단, 새로 만들어지는 성평등위원회와 19대 총여학생회 간에 사업이 겹칠 경우 이를 중운위가 중재하도록 하는 부칙이 새로 생김.

=> 자신의 임기 중에 개정된 회칙을 적용시키는 '박정희식 유신헌법' 부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오히려 성평등위원회와 19대 총여학생회 사이에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한 기형 조항까지 새로 만들어냄.

- 총여학생회가 갑자기 폐지되고, 동아리 연합회의 위상이 낮아지는 부분은 ver.1.9나, ver.2.0이나, 여전히 전혀 바뀌지 않았음.

- 전체적인 회칙의 길이가 길어지고, '-사무' 등의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으나 핵심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음. 그리고 ver3.0이 어떠한 의견을 수렴해서 고쳤는지도 불분명.

- ver3.0은 최초 개정안의 악성 조항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탄핵권이나 부칙, 중운위의 권한 등은 오히려 더 교묘해짐.

따라서 여전히 회칙 개정안 총투표는 부결되어야 한다!

시험 기간에 나온 총학생회 유인물 비판 -왜 학생회 대의체제는 중요한가.

24일 중도 앞에서 총학은 비타 500과 함께 절 좋은 중이에 뽀뽀한 글씨의 유인물을 뿌렸다. 유인물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앞면엔 "모기 잘 잡고 있습니다, 중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처가 장학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 빌려드릴게요, 남 휴가 들어서고 여휴는 온돌이 깔리고 있습니다!" 식의 학교 측으로서도 별반 반대할 이유가 없는 각종 복지 공약이 모조리 "논의 중에 있다"는 심심한 뉴스. 뒷면은 "여러분도 싫어하는 한총련, 그 한총련이 지금까지 제 멋대로 일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중운위를 비롯한 학생회 체제였으므로, 학생회 체제를 완전히 개편하기 위한 것이니, 투표하시라!" 라는 선동. 심심한 뉴스가 담고 있는 내용은 사실 매년 "운동권" 총학도 종종 했던 것이니 별반 새로운 것이 없고, 색다른 내용으로 가득한 선동에 주목해보자.

1. 신조어가 등장했다, "활동적인 소수"!

"운동권은 뭐고 일반 학생은 뭐냐. 그런 모호하고 악의적인 구분을 왜 하는 것이냐!" 라는 학우들의 견해가 와우 연세 게시판에 등장하자, 총학은 "운동권"이라는 용어 대신 "활동적인 소수"라는 신조어를 개발했다. 총학은 신나는 중운위 속에서 학우들의 목소리는 온데 간데 없는데 그것이 "중운위에 활동적인 소수들이 모이기 때문"이라고 슬퍼하고 있다. 어라, 활동적 소수? 그것은 오히려 총학을 지칭하는데 더 적합한 말이다. 회칙을 몇 차례나 혼자서 씩씩 수정하고, 중운위원들이 말 한마디 하기 무섭게 즉각적으로 긴 반박글을 주룩주룩 써내고, 유인물 선전판 대자보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적적 만들어내고, 조중동을 확 휘어잡는 엄청난 활동력! 중운위도, 학운위도, 심지어 탈정치 학생 연대로 부정하는 총투표를 강행하는 고독한 소수! 그래서 신나는 총학 속에서도 학우들의 목소리는 온데 간데 없었구나, 총학에 활동적인 소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결국 "중운위원들이 운동권이고 운동권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요!" 이것이 총학이 하고픈 말이다. 활동적인 소수라는 신조어도 우리는 "운동권"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이고, 단대 대표자들은 "운동권"이기 때문에 학우들이 싫어할 것이 뻔하다는 이야기이다. 아...더 말하기도 지겹지만 자신이 지향하는 사회가 있고, 이를 위해 유무형의 액션을 취하는 모든 것들은 운동이다. 총학은 시끄러운 투쟁이 사라지고 학교 당국과의 평화 협력을 통해 연세 자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 총학 역시 운동의 한 분파임은 명확한 것인데, 언제까지 "운동권"을 우려먹을 것인가, 우리의 철저히 "활동적인 소수", 반동권이며!

2. "활동적 소수"의 목에 방울을 매달자고?

-중운위는 학운위원에게 왜곡된 정보를!

총학의 말에 따르면, 중운위에 활동적 소수들이 모인 바람에 학운위원들은 거짓 정보만 주워 들고 있다. 이월 적립금이 학교 운영비로 쓰일 수 있다는가, 비목적 기부금이 쌓여있다는가, 총학이 이중장부를 운영중이라는가 등등이. 총학은 상당히 학운위원들을 불쌍하게 보고 있지만, 이것은 역으로 학운위원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운위원들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등록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학생들의 의문은 매우 간단하다. 이월 적립금이 학교 운영비로 쓰일 수 없는 것이 법도라면, 이월 적립금은 왜 필요한가? 비목적 기부금이 쌓여 있지 않다면, 목적 기부금은 어디 쓰이고 있으며, 목적 기부금도 없다면 이월 적립금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기부금이 아닌가? 학생들은 등록금이 없어 휴학을 하는데 왜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 의존율이 60%를 넘어선단 말인가! 이에 대해 한 번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고, 교육부 감사마저 피해나가는 학교측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행동이다. 올바른 투쟁이다. 그러나 몇몇하지 못한 '세계적 상식' 선에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 반 회장들은 총학의 눈에 "단대 대표자들의 악 선동을 반회장들이 아무 생각 없이 믿는" 우매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총학은 어떻게든 중운위원들을 고립시키고, 교육투쟁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활동적 소수의 음모론으로 만들고 있다. 활동적 소수가 활개를 치게끔 만드는 학생회의 기형적 구조를 없애기 위해, 반동적 총학은 온갖 투쟁을 불사하고 있다!

-기형적 중운위? 더 기형적인 총학의 학생회 개편안!

총학은 말한다, '중운위가 얼마나 기형적이나면, 총학은 중앙 동아리 회원인 여학생은 총여, 동연, 단대, 총학으로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므로, "사람은 하나인데 의사가 4개"라니까!' 좋다. 그렇다면 총학 개정안대로 중운위에 단대 회장만 남기고, 학운위에는 반 회장만 남기는 구조로 재편하면 사람도 하나, 의사도 하나가 되는가? 총학과 중운위와 학운위 의견이 서로 다르면, 사람은 하나인데 의사는 3가지이고, 또 내 생각은 충돌하게 되어 있다. 결국 총학이 원하는 대로 사람도 하나, 의사도 하나가 되려면 총학, 중운위, 학운위 셋 중 하나만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총학은 차마 중운위, 학운위를 없애자는 급진적인 주장을 할 용기는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모든 권력을 총학으로 옮긴다, '이제 중운위는 총학의 감시기구, 학운위는 일부 제한 기구로 전락시키고, 총여는 총학 산하 기구로 들어오고, 동연은 돈이나 타 가시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람도 하나, 의사도 하나가 된 셈인가.

총학 개정안의 기괴함은 성평등 위원회 위상의 급 상승 부분에서 절정에 달한다. 여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자적 기구가 왜 필요하지도 모르는 총학은 성평등 위원회 사업은 학생 총회에서조차도 명령으로 중지시킬 수 없는 고유 권한이라고 못 박고 있다. 총여가 중운위원으로 자격을 갖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하면서, 성평등 위원회는 학생회 최고 의결기구조차 손 댈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어불성설은 무엇인가? 이 역시 성평등 위원회가 총학 산하 기구인데, 총학이 짱이므로 성평등 위원회도 막강한 것이 모양새에 맞아서? 아니면 여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필요할 만큼, 학내에서 여전히 여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그토록 감수성이 대단하다면 총여 패지를 들고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의 학생회 구조, 왜 유효한가?

현재 학생회 구조는 총학의 말대로 권한이 중첩된다. 총학이 중운위원이자 학운위원이고, 중운위원은 곧 학운위원이다. 그러나 이는 권한의 중첩이 아니라, 의무 이행의 기본 조건이다. 총학은 전체 학생들의 대표자로서, 가장 기초단위에서 활동하는 반 회장들로부터 학우들의 견해를 듣고, 총학생회의 견해를 지속적으로 선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총학은 전체 반 회장들과 단대 회장들이 모이는 회의 체제에 당연히 출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사항을 책임있게 이행하기 위하여 학운위 성원의 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대 회장 역시 말할 것도 없다. 반 학생회 사업은 단대 학생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총학과 반학생회가 사안 사안마다 회의를 열고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중운위 회의를 매주 한 번씩 하고 있다. 반학생회-단대 학생회-총학의 의견 조율, 합의, 책임 있는 집행의 강제는 학생회 운영에 있어 사소한 것부터 대규모의 교육투쟁까지 모든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유기적인 대의 체제가 없다면 학생회 전체는 엉망이 되거나, 총학의 독재로밖에 이어질 수 없다. 이번 총투표 사안을 보라. 총학이 학운위 결정도, 중운위 결정도 무시하고 총투표를 강행함으로써 단대도, 반도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총학은 학운위, 중운위도 거부한 총투표 홍보에 엄청난 인쇄비를 써내고 있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또 상당한 돈을 들인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대표자들은 총학 회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총학의 악 선동에 대한 해명으로 엄청난 역량을 쏟아야 하며, 소리 소문 없이 교육 투쟁은 완전히 정지되었다. 그 귀중한 3.4월을 그냥 날려버린 것이다!

물론 현 회칙 상 총회장은 학운위, 중운위와 논의 없이(?) 총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투표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은 관례였고, 총투표의 위상에 비추어볼 때에도 학우들에게 견해를 듣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의견 수렴함은 어디에 있는지, 비전이 없그레이트 되는 총학생회만의 개정안은 누가 어떻게 고친 것인지, 공청회를 잡아놓고 그전에 수정 불가 최종안을 던진 채 공청회 참석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총학!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고, 현 회칙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총학생회가 민주주의, 건강한 학생회 등에 열을 올리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총학의 개정안대로 회칙이 개정된다면, 총학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면, 연세대 학생회의 비민주성은 극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은 과연 음모론에 불과 한가?

<오 화백의 -점잖은 곰탕이의 품수>

